전남해상 넘치는 쓰레기…정부는 나 몰라라

플라스틱 등 매년 1만6천톤…5년간 8만2283t 수거

전국 해양 쓰레기의 23.6%…해수부, 지자체에 떠넘겨

전남지역 해상에서 매년 1만6000t 이상의 해양쓰레기가 수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7년 해양쓰레기 수거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남지역에서 5년동안 8만2283t의 쓰레기가 수거됐다.

이는 전국적으로 수거한 해양쓰레기 34만8155t 중 23.6%로,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은 수준이다. 이어 경남 5만8297t(16.7%), 해수부 5만4328t(15.6%), 제주 3만8939t(11.2%), 충남 3만7666t(10.8%) 순이다.

전남 해양쓰레기양은 지난 2013년 7958t(16.2%)에서 2014년 1만7344t(22.5%), 2015년 1만5735t(22.8%), 2016년 2만1589t(30.5%), 지난해 1만9657t(23.9%)이다.

해양쓰레기는 해가 갈수록 늘고 있지만, 해수부 수거와 정부 지원은 줄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가 해양쓰레기 수거를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해수부 연도별 쓰레기 수거 비중은 5년새 절반이하로 떨어졌다. 2013년 수거한 4만9080t 중 해수부가 수거한 양은 1만2065t으로 24.6%였다. 하지만 지난해 수거한 8만2175t 중 해수부가 수거한 양은 9664t으로 11.8%에 그쳤다. 5년새 해수부 비중이 12.8%포인트 급감한 것이다.

지난 2015년부터 전국 해안 40개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해안쓰레기는 플라스틱류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플라스틱류는 2013년 47%에서 지난해 58.1%로 5년새 비중이 11.1%포인트 증가했다. 지난해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플라스틱류가 58.1%로 가장 많았고, 스티로폼(12.6%), 나무(6.5%), 유리(5.5%), 흡연·불꽃놀이(4.5%), 금속(4%) 등이 뒤를 이었다.

이처럼 플라스틱 쓰레기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최근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한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양쓰레기 수거의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박완주 의원은 "세계적인 환경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해양쓰레기가 전남 해안에 가장 많았지만 해수부는 쓰레기 수거를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다"며 "국가 지원을 늘려 지자체가 재원 걱정 없이 해양환경 보전에 앞장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김여송 광주일보 대표 신문협회 발행인 세미나 참석

김여송 광주일보 대표이사(한국신문협회 부회장·사진)는 11일 충북 청주 그랜드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신문협회 발행인 세미나에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홍성철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가 '종이신문 독자 특성 및 차별화 전략'을 주제로 발제했으며, 회원사 발행인 등 30여 명의 참석자들과 신문의 미래에 대해 논의했다.

홍 교수는 이날 "디지털 채널 차원의 전략으로 지역뉴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뉴스포털에서 뉴스를 배치할 때 전국을 권역별로 구분, 각 지역별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역 뉴스의 노출 범위를 서울과 경기·인천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과 강원권, 충청권, 경상권, 호남권 등으로 구분함으로써 권역별 차이를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홍 교수는 이와 함께 "광고 수익을 대체할 다른 수익원은 현실적으로 종이신문과 디지털 뉴스 구독료 수입을 올리는 것이 가장 유력한 대안"이라며 "종이신문의 구독료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재 '뉴스는 무료'라는 국민적 인식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디지털 뉴스 소비가 포털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개별 언론사들의 독자 분석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신문사가 직접 독자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타깃 마케팅이 가능하도록 아웃링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신문협회는 전국의 일간신문 및 뉴스통신사 가운데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49개 신문, 1개 통신사가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으며, 광주·전남에서는 광주일보가 유일한 회원사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 세계수영 준비 순조

정책자문관·종목담당관 위촉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는 11일 경기별 자문과 실무 역할을 맡을 경기정책자문관과 종목담당관들을 위촉하고 본격적인 대회 준비에 들어갔다.

경영 분야와 대회 전반적인 정책을 자문하는 경기정책담당관에 임효택 전 광주수영연맹 전무이사가 위촉됐다. 또 종목별 담당관은 김은희 강원도청 다이빙 코치(다이빙 분야), 이민수 인천수영연맹 이사(수구 분야), 이수옥 태평양아시아협회 집행위원장(아티스틱수영 분야), 김효준 대한수영연맹 이사(오픈워터수영 분야), 이종희 대한수영연맹 시설위원(하이다이빙 분야) 등이다.

대부분 국제심판자격을 소지한 이들은 조직위가 수립한 경기운영계획(CPM)과 현장운영계획(VOP)을 수정·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또, 종목별 경기장 개·보수 등에 자문활동을 수행하며 국제대회 경험을 살려 현장 실전체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기법을 조직위에 전수한다. 국제수영연맹(FINA)과 협력·지원업무, 경기관련 업무에 대한 경기단체 의견 반영, 대회 종료 후 경기운영 결과 보고서 자문도 담당한다.

조직위는 위촉장 수여와 함께 시급한 종목별 현안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자문회의를 진행했다. 조직위는 이미 작성한 마스터플랜과 경기시설 등 기본적 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실전준비에 들어갈 계획이다.

조영택 조직위 사무총장은 "종목별로 국내 최고의 전문가인 종목담당관들이 그동안 쌓은 국제대회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완벽한 경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

광주 국제식품전 광주 국제식품전이 11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관람객들이 행사장에 전시된 제과·제빵경진대회 입상작을 둘러보고 있다. /나명주 기자mjna@kwangju.co.kr

대광여고 학생들 프랑스 대통령 초청 받아

15일 한·불 정상회담 엘리제궁 만찬장 참석

고등학교 방문 수업참관도

Monsieur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et Madame Brigitte Macron
prient Madame Park Seon Ok
de bien vouloir venir au dîner d'Etat qu'ils offriront en l'honneur
de Son Excellence Monsieur Moon Jae-in,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de Corée,
et Madame Kim Jong-Sook
au Palais de l'Elysée, le lundi 15 octobre 2018 à 20 heures.
Costume sombre
Uniforme
Robe longue

광주 여고생들이 프랑스에서 회담하는 문재인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만찬장에 초청을 받아 눈길을 끈다.

11일 대광여고에 따르면 이 학교 학생 6명, 교감, 교사 등 8명은 프랑스 정부로부터 오는 15일 엘리제궁에서 열리는 한국과 프랑스 양국 정상의 만찬에 참석해달라는 초청장을 받았다.

파비앙 페논 주한 프랑스 대사는 지난달 특강을 위해 대광여고를 방문, 문재인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 방문 시 학생들을 초청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실제로 초청장을 보내왔다. 〈사진〉

대광여고 유양식 교장은 "프랑스 정부가 학생 6명, 박선옥 교감, 양수경 불어 교사 등 초청자 한 명 한 명에게 초청장을 보내왔다"고 전했다.

대광여고의 국제교류는 프랑스어를 가르치는 양수경 교사가 2016년 프랑스 정부로부터 학술공헌 훈장을 받으면서 본격화됐다. 이후 주한 프랑스 대사가 바뀌어도 대사들은 매년 대광여고를 찾아 제2외국어로 불어를 배우는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 등 학교와 교류를 이어왔다. 광주시교육청을 방문해 교육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대광여고 방문단은 프랑스에 머물면서 2개 고등학교를 방문해 수업도 참관한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에게 소중한 기회이자 살아있는 체험의 장이 될 것"이라며 "장휘국 교육감도 오는 12월 중 프랑스를 방문해 몽펠리에 지역 교육청과 교류 협력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

전남 청년 마을로·내일로 프로젝트 출범

지역 사업장서 경험 쌓고 역량 키워 취·창업 도전

전남도 일자리 특화사업인 '전남 마을로! 내일로! 청년활동가' 발대식이 11일 도청 김대중강당에서 열렸다.

'전남 청년 마을로·내일로 프로젝트'는 전남에 거주하거나 거주하고 싶은 만18세에서 39세 청년들이 전남지역 마을사업장과 공공기관에 근무하면서 일 경험을 쌓고 역량을 키워, 기업에 취직하거나 새로운 아이템으로 창업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들 사업은 지난해 전남도가 자체 기획해 추진했다. 지난 3월 '제1회 대한민국 지방정부 일자리정책 박람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전문가들의 호평을 받아 행정안전부의 국가사업으로 채택됐다.

전남도는 청년들이 주기적으로 만나 토론하고 아이디어를 나누는 '청년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기획·마케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전문교육체계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 등 청년활동가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500명의 마을로 청년활동가 중에는 전남 청년뿐 아니라 다른지역 청년 50명이 포함돼 있다.

전남도는 올해부터 2021년까지 4년간 3500명의 청년들이 전남에서 일자리를 얻고 정착하도록 지원, 청년 실업 해소와 지역 활성화에 기여토록 할 계획이다.

전남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에 참여해 나주 명하햇골에서 근무할 예정인 윤옥현 씨는 "일본의 사례를 보고 쌀을 이용한 친환경 크레파스를 만드는 벤처창업을 했으나 현실적인 문제로 좌절을 맛봤다. 이 프로젝트를 보고 다시 한 번 해보자는 의욕이 생겼다"며 "업무를 배우고 역량을 키워 지역에서 창업하고 지역민과 함께 하는 청년 활동가가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임야
지분물건/문중산 환영
바로삽니다.010-3605-5000

경매비법 전수
· NPL과 특수물건만 전문취급
· 교육/임장비 1200만원(3개월)
· 배우면서 단독/공동투자 가능
(주)오천경매.010-3605-5000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담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풍수 사주 ▶ 수강생 수시 모집 및 상담
풍수와 사주(명리)를 한번에~
구슬이 세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듯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이번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개 강 (초급 및 중급)
• 일 시 : 2018. 10. 30(화) 오후7시
• 장 소 :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교육장
(무등로478-1 : 산수오거리 → 무등산방향입구 우측2층)
• 수강료 : 풍수 + 사주 15만원(매월)
공개강좌
• 일 시 : 2018. 10. 23(화) 오후7시
• 장 소 : 상동(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교육장)
• 대 상 : 누구나 (선착순○○명)
컨설팅(전문상담) 분야
• 천기비법 대 공개
• 기감풍수 비법 교육
• 분묘, 이장, 납골 및 수목장 수맥파 중화
• 음택, 양택의 풍수 감정 및 비보
• 사업(장사) 부진의 풍수적 진단
• 사주 교육 및 감정(사주, 궁합, 택일 등)
• 작명(신생아, 개명, 상호 등)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010-3146-6370 / 010-2246-1508

한마음 공인중개사
• 광산구 송정동 아파트상가2층 34평형(학원적합) 매매가 7천만원
• 동구 계림동 빌라 35평형 5층중4층 현임대중 전세8000만원 포함 19년1월만료 매매가1억3천만원
• 남구 백운동 2층상가주택 99㎡ 보증금 3천만원 월40만원 매매가 1억8천만원
• 북구 북동 4층상가주택 대지 98㎡ 보증금1300만 월85만원 안집제외 매가 3억7천만원
• 남구 월산동 3층상가주택 230㎡ 보증금 1억2천만원 월85만원 매매가 4억5천만원
• 동구 산수동 4층상가주택 대지 132㎡ 보증금3300만 월155만원 안집제외 매매가 5억5천만원
• 동구 두암동 3층상가건물 240㎡ 보증금 3천만원 월220만원 매매가 6억원
• 북구 신안동 5층상가건물 146㎡ 보증금 5천만원 월282만원 매매가 7억원
• 북구 운암동 4층상가주택 145㎡ 보7천만원 월260만원 매매가 8억원
• 북구 오치동 3층상가주택 270㎡ 보증금 5천만원 월310만원 매매가 8억5천만원
• 남구 백운동 3층상가주택 210㎡ 보증금 1억원 월500만원 매매가 14억원
• 북구 신안동 대지 520㎡ 매매가 14억5천만원
• 남구 주월동 5층상가주택 대지500㎡ 보증금2억 월920만원 안집제외 매매가28억원
• 북구 운암동 대지2600㎡ 보9천만원 월500만원 매매가 44억원
• 해남 사찰및납골묘 1300기 토지3만6천㎡ 매매가 8억5천만원
• 화순 도곡온천내 무인텔 대지 3000㎡ 건물4층 3동 객실37개 월매출 6천~7천만원(장부공개가) 융자 28억원포함 매매가35억원
☎ 010-2314-8567 (계림오거리)